

韓國政府의 社會的 基盤

金 雲 泰

(教 授)

1. 韓國의 社會集團의 形態와 政治的 機能

우리나라의 社會集團은 그 文化的 傳統과 社會成員의 特性을 고려하여 血緣集團 地域集團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¹⁾ 각기 政治過程에서 多樣한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오늘날의 韓國社會組織의 基本原理로는 아직도 血緣性和 地域性和 같은 第一次的 紐帶가 강조되어야 하겠으며, 産業化와 都市化가 促進됨에 따라 特殊한 目的과 關心에서 創意的이고 開發的인 形式에 의하여 形成되는 各種 利益集團이 憤出하고 있으나, 社會變動의 過渡的 過程에서 政治行態나 政治文化 및 利益表明과 結集機能에 있어 後進性和 傳統性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韓國의 血緣集團은 社會의 原初的 單位인 家族과 그리고 血緣의 利益集團인 同族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家族은 結婚이나 血緣 또는 入養의 유대로 單一家口를 形成하는 集團으로

(1) 社會集團의 形態는 多樣한 觀點에서 分類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비교적 적절한 示唆의 몇몇 分類方法을 소개하면,

R. Bierstedt는 集團類型을 ① 統計集團(statistical group) ② 社交集團(societal group) ③ 社會集團(social group) ④ 結社集團(associational group)으로 구분하고 있으며(R. Bierstedt; *The Social Order*, 1963, p. 293)

F. Tönnies는 社會集團을 共同社會(Gemeinschaft)와 利益社會(Gesellschaft)로 分類하고 前者는 本質意志 그리고 後者는 選擇意志에 의하여 形成된다고 했다.

R.M. Maclver는 集團 또는 組織을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첫째는 地域的 統一을 이루는 共同體(Community)와, 둘째는 명백한 組織은 없고 利益意識이 있는 社會階級(social class)과 各種 集團 및 群衆(crowd), 그리고 셋째로는 明白한 組織과 利益意識이 있는 結社體(association)로 分類하였다. (R.M. Maclver & C.M. Page; *Society*, London, Macmillan, 1967, p. 215) C. M. Cooley는 集團을 第1次的集團(primary group)과 第2次的集團(secondary group)으로 分類하고 있다. (Charles H. Cooley; *Social Organization* pp. 23-4.) 여기서 第1次的集團은 家族 同族의 日常的 모임과 같은데서 發見할 수 있는 親近하고 人間的이며 對面的인 集團을 말하고 있다.

以上 여러가지 分類는 集團形態를 大體로 近代의 形態와 前近代의 形態로 二元化해서 兩分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的 社會關係는 單一하지 않고 그 나라의 環境의 與件에 따라 또는 社會變動의 樣相에 따라 聚合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集團類型을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形式上 分類했다 하더라도 人間이 社會集團을 形成하고 참여할 때는 다양한 目標과 外生的 內生的 與件이 주어지기 때문에 內容上으로는 混合의이거나 融合의인 組織樣相을 띄우는 것이 혼한 것이며, 한가지의 基準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서, 廣義로는 家計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集團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家族 또는 家族制度는 오늘날 歐美의 核家族化傾向과는 달리 傳統的으로 大家族制이며 複合周期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夫婦의 出産期間(平均 19年間)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많은 子女들을 出産 養育하느라고 夫婦들은 老境에서 外國의 경우처럼 文化的 社會의 生活를 즐기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다. 급기야는 子女들을 모두 出嫁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長男은 동생들의 養育과 教育을 떠맡게 되고 自己子息의 養育과 教育 및 保護를 同時에 行해야 되는 二重 내지 三重의 生活周期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近來 二世代家族이 家族形態上으로 지배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機能上으로는 小家族制로 약간 변모는 되었지만 大家族制의 機能과 의식이 많이 간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同族의 概念과 機能도 우리나라에서는 西歐와는 달리 同族은 祖上崇拜思想이 강하고 祭祀共同體를 形成하여 共祖同族의 의식을 기본으로 삼고 親睦과 協同과 自衛自強의 機能을 다하기 위하여 集合의 行動으로 結集된다.

이러한 結果에 있어 同族部落은 同姓同本者들이 一部落 또는 一地方에 集團居住하는 地緣의 生活共同體를 가리키며 同族集團은 단지 同族意識에 기반하여 前記한 機能을 위하여 集合의 行動으로 結集하는 生活共同體를 가리킨다.⁽²⁾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血緣集團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家族主義의이고 集團主義의이고 權威主義의이고 또한 情誼的인 政治文化를 갖게 하였으며 政治過程에서 閉鎖主義的이고 歸屬主義的인 後進性을免치 못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地域集團은 自然的인 地理的 特性에 따라 좀더 細分하면 地域間 人爲的 境界線이 없는 것과 人爲的 境界線이 區劃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前者의 代表的인 것으로 近隣集團 自然部落, 村落共同體, 農村共同體 등이 있고 後者의 例로서 里, 洞, 邑, 面, 郡, 市, 道 등의 行政地域單位組織을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은 地域集團은 地域的 排他主義를 露呈하기도 하나 한편 地域共同體의 連帶性과 協調를 促進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利益集團에는 명확한 조직은 없으나 利益意識이 있는 班常制度 엘리트階級과 같은 社會階層과 家族, 人種集團 및 群衆이 있으며 또한 組織과 利益意識이 있는 契 親睦會 孝會 學校 軍隊 企業體 勞組 政黨 政府 등이 있는데 前者는 自發集團(voluntary group)과 非自發集團(involuntary group)으로 나눌 수 있고 後者는 다시 正式組織(formal organization)과 非正式組織(informal organization)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는 都市에는 自發集團이 많으나 農村에는 非自發集團이 많고 農村에 조직되어

(2) 同族集團에 관해서는, 韓國農村社會研究會編, 農村社會學, 1965, pp. 106—114. 崔在錫, 「同族集團의 組織과 機能」 民族文化研究 第2輯, 1966.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研究, 1947, pp. 128, 137 참고.

있는集團 중에 7할 정도는 非自發集團이고 自發集團은 3할 정도에 달하고 있다. 주로 政府와 官機關이 主導하는 農村開發에 관련된 近代的 組織은 非自發集團에 屬하며 冠婚喪祭를 中心으로 한 傳統的인 各種의 契組織은 自發集團에 屬한다.

그리고 正式組織(또는 公式組織)은 形式的인 節次와 契約에 立脚해서 近代的 結社集團의 基礎를 形成하는 人爲的인 組織으로서 政府 政黨 企業體 勞組 學校 軍隊 教會 및 오늘날 農村의 里洞協同組合 山村契 生活改善俱樂部 등이 이에 屬하며 그 集團組織의 屬性으로서는 結社의 規範, 身分, 威勢, 權威, 上位 下位 사람에 對한 外在的 評價 및 身分關係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反對로 非正式組織(또는 非公式組織)은 正式組織內部에서 血緣 地緣 同窓會 第一次의 紐帶나 其他 親密한 人間關係를 土臺로 比較적 自然發生的이고 非契約의 非形式的인 節次가 거의 없이 形成된 組織으로서 親睦會, 同窓會, 花樹會 및 各種 契 중에서도 小規模의 것과 歷史的으로 오래 된 것 등이 여기에 屬하며 그 集團組織의 屬性으로서는 前述한 正式組織의 屬性들과 對應하여 共同的 規範 役割 尊敬 指導力 支配力 服從 사람에 對한 內在的 評價 및 役割關係 등을 들 수 있겠다.⁽³⁾

무릇 우리나라에 있어 社會集團의 組織과 能機은 近代的 過程에서 많이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 變化는 우리나라의 集團形成의 重要한 傳統的 要因인 第一次의 紐帶로서의 血緣性과 地緣性이 漸次 弱화되어 가고 있는 대신 利益性과 組織性이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서 集團接觸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集團組織의 專門化와 制度化 傾向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특히 血緣集團인 家族과 同族의 變化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大家族制는 核家族 또 小家族制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地域集團도 居住의 近隣性 隣接性 및 이웃성이라는 特色이 漸次 소멸되고 보다 넓은 地域으로 集團化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利益集團은 점차 증가되고 社會가 고도로 分化 機械化되어 감에 따라 병행하여 官僚制的 特性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成員들의 傳統性으로 말미암아 外形上의 構造는 近代的 利益集團이라 하더라도 機能上으로는 家族主義的 地緣主義的 特性이 끈질기게 온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國民의 意識構造가 社會的 國家的 必要性에 의한 組織形式에 따르지 못하여 非自發集團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社會集團構造에는 그 形式如何를 不問하고 아직도 家族主義와 集合主義 그리고 地域主義의 特色이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韓國의 政治行政을 特徵지우고 있는 것이다.

2. 韓國家族의 形態와 政治的機能

오늘날 우리나라의 家族形態는 一夫一妻制의 單婚制로서 歐美諸國이나 日本과 比較하여

(3) 集團組織의 屬性에 關하여, R. Bierstedt; *The Social Order* 1963, p. 337 참고.

特殊한 것은 아직도 族外婚을 강력한 社會的 禁忌로서 고수해 오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父系9寸과 母系4寸까지는 民法上으로 婚姻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婚姻의 成立에 있어서는 自由結婚이 都市와 年少者들의 결혼에 있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을 뿐 農村婦女子의 91.2%가 중매결혼을 하고 있는 것을⁽⁴⁾ 보면 傳統性이 매우 강하다 하겠다.

家族의 構成員은 大體로 夫婦 親子 兄弟 姊妹 祖孫 및 아들과 近親關係가 있는 成員과 이밖에 同居家口에 屬한 者를 포함한다고 하겠으나 都市 家族員은 다른 外國의 경우와 비슷하게 農村이 비하여 훨씬 적은 편이나 韓國의 家口當人口는 70年代의 5.4名에서 75년에는 5.1名으로 줄었다. 人口數가 增加하고 家口當 人員數는 줄었으므로 家口數는 自然 늘게 되었다. 즉 7)年으로 부터 75年 사이에 家口數는 15.5%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核家族化傾向을 말하는 것이다.

農村調查⁽⁶⁾에 의하면 家族集團의 크기는 中間值가 5.95名이고 中位數는 6.28名이며 全國 農村(都部)의 平均家族員을 5.37名으로 平均家族構成員을 5.6名으로 본다면 外國의 4.5名 以下의 小家族과 비교해서 大家族이라고 專門家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韓國에 있어서 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家族은 家父長의 統制下에 全員 相互協調하지 않으면 農業을 영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都市에 비하여 多人數일 뿐만 아니라 家族員의 種類도 많으며 한편 都市의 경우에는 非家族同居人數가 農村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많다(都市家族의 37.0%에 대하여 農村家族의 18.6%)이로서 家口의 크기도 外國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 그리고 都市에서는 職場이 居住와 分離되어 있기 때문에 小家族化하게 되며, 그러나 都市家族이 構造上 核家族化했다 하더라도 傳統的 慣習으로 機能上 아직도 從來의 大家族制度의 特性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例컨데 서울市の 家族調查에 의하면 平均家族員이 5.6名이고 家族은 2世代家族이 가장 많아서 72.1%이고 그 다음으로는 3世代家族으로 21.6%이며 그 밖에 少數의 1世代와 4世代 家族이 있다 한다.⁽⁷⁾ 여기에서 3世代 以上の 家族은 擴大家族⁽⁸⁾임에 틀림없고 2世代 家族이라 하더라도 擴大家族일 수 있는 것이다. 農村家族은 都市家族에 비하여 3世代 以上の

(4) 金泳謨, 韓國社會學, 法文社, 1972, p. 121. 間接引用

(5) 家口는 世帶라고 호칭해 왔다. 1955年 內務部 統計局에서 實施한 第1回 簡易人口調查時에는 世帶 또는 世帶主를 家口 혹은 家口主로 부르고 있었다. 當時의 大統領令 第1033號 規定에 의하면 「住居와 家計를 같이 하는 者」를 家口主로 간주하고 있다.

(6) 高鳳京(朴三人),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서울大出版部, 1963, p. 17.
金泳謨, 前掲書, p. 121. 引用

(7) 李效再, 「서울市 家族의 社會學的 考察」, 梨大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1輯, 1959, pp. 16, 28.

(8) 擴大家族(extended family)은 核家族(nuclear family)의 反對概念으로서, 核家族은 夫婦와 未婚의 子口로 構成된 歐美의 典型的家族形態이고, 擴大家族은 夫婦와 既婚의 子女로 構成된 家族形態이다. 우리나라 都市家族의 상당수가 擴大家族의 特性을 갖고 있고, 農村家族에서는 大部分이 擴大家族이다.

家族이 더욱 많고 核家族은 보다 적은 것이다. 오늘날 都市家族 중에는 상당수의 家族이 擴大家族의 特性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長子까지 포함하여 核家族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家族構成의 변천은 韓國의 都市와 農村의 社會經濟的 變動과 實情을 반영하는 것으로, 各已 韓國의 政治行政構造와 機能을 特徵지우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가족제도의 변천은 農村보다도 都市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都市에서의 工業化와 教育의 擴大, 西歐의 近代化文明의 급속한 導入 특히 民主主義文化와 個人主義思想의 受容, 文化的 世俗化的 促進 그리고 女性들의 社會참여의 積極化 및 都市職業의 多樣化와 人口의 流動化 등으로 말미암아 漸次 民主的 家族으로 變質되고 核家族의 特性을 많이 띠우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오늘날 都市와 農村의 近代化過程에서 家族은 權力構造나 役割構造 및 愛情構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變化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個人的으로나 社會적으로나 그리고 政治적으로 다양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家族成員에게 個人的으로 民主家族이나 父權家族이나에 따라서 相異한 個性形成과 政治社會化機能을 수행한다.

둘째로 家族은 社會적으로 文化傳承을 위한 教育機能과 身分歸屬의 機能을 수행한다. 특히 오늘날 舊王朝時代의 班常의 身分階級은 쇠퇴하였다 하더라도 社會階層上的 地位와 身分歸屬을 表示하는 機能을 한다.

셋째로 家族成員의 役割構造가 分化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都市家族의 役割構造는 農村家族에 비하여 分化도가 높고 상이한 特質을 지닌다. 오늘날 農村에서도 西歐文化의 移植과 새마을運動의 展開 그리고 勞動力의 不足으로 家事에 從事하던 傳統의 女性觀이 變化하게 되었으며 女性의 社會參與 및 就業이 盛行하고 있고 都市에서는 그보다도 더욱 심하다. 이리하여 家族成員들의 家庭內에서의 役割構造가 分化되어가고 있을 뿐더러 社會的 機能도 漸次 多樣化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우리나라 家族集團의 權力構造는 傳統의 儒教思想의 影響을 받아 家父長의 大家族制로서 家長의 權力이 絕對의이며 男性이 女性보다도 社會的 優待를 받아 왔다. 近來에 오서 女性의 地位와 權利가 伸長되어 法律上으로 어느 程度 均衡된 權利主張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都市의 女性과 教育을 받은 女性들에게는 男女間의 關係가 대단히 自由化되고 있고 또 核家族化는 男女關係의 自由化를 助長하는 동시에 家族成員의 役割配分을 促進하고 결국은 權力의 分權化를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家庭內에서의 傳統의 權威構造가 挑戰을 받게 되고 家長의 家族員에 대한 統制力은 弱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家族의 內部構造에 있어 權力이 弱化되는 反面에 愛情關係는 弱化되고 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에서 一般的으로 都市家族의 夫婦愛는 農村에 비하여 强하나 西歐에

비하면 弱한 것 같고 반면에 親子間의 母性愛와 父性愛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強한 것 같다. 그리고 大家族의 경우에는 夫婦愛가 強하지만 大部分의 農村과 一部都市의 擴大家族이나 大家族의 경우에 母性愛와 父性愛는 勿論 兄弟間의 友愛도 비교적 強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의 大家族制度에는 長子相續制와 父母를 섬기는 孝道가 있기 때문에 西歐諸國에서 볼 수 없는 社會保障制度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3. 韓國의 農村社會와 都市化

우리나라 農村聚落에는 마을 골(谷) 동네 部落 등이 있고 이 밖에 人爲的인 行政地域集團으로 里·洞 邑·郡·市·道 등이 있다. 한 個의 마을 또는 골(谷)이 한 個의 동네를 한 個의 마을 또는 동네가 한 個의 部落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경우는 全體部落의 46.4%에 달하며 나머지는 한 개의 部落이 여러개의 마을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平均 286個의 自然部落이 한 個의 行政里를 형성하고 있다. 南韓의 行政洞里는 18,523個인데 自然部落은 53,238個이며 一般的으로 全北, 江原, 忠北, 全南地方은 3個 以上の 部落이 한개의 行政里를 구성하고 慶北, 慶南, 濟州, 京畿, 忠南地方은 3個未滿의 部落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오늘날 우리나라 農村部落이 過去처럼 강력한 社會的 統一과 拘束力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아직도 共有土地, 共同努力, 相互扶助, 共同信仰 등의 共同生活를 영위하고 部落住民은 共同體意識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自然部落은 共同體의 特質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동시에 近隣集團의 機能도 수행하고 있다.

韓國農村에서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共同體의 特質로서는 氏族所有의 先山, 齊室, 墓位 畓과 村落共有의 洞林, 洞祠, 洞畓 그리고 共同勞動의 形態로서 두레와 賦役 및 共同苗 등의 遺制를 들 수 있겠다.

農民的 共同生活圈은 自然的 地理的 條件에 의하여 규제될 뿐만 아니라 社會的 文化的 產業的 및 行政的 要因에 의해서 규정된다. 우리나라 農民的 生活構造는 아직도 文化的 條件이 自然的 地理的 條件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生活圈과 生活構造의 傳統性이 強하나 한편 最近의 國土綜合開發과 高速道路 및 通信의 急速한 發達로 日 生活圈이 急速히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農村住民의 共同生活圈을 형성시켜 주는 共同媒介는 무엇보다도 自然部落의 隣保活動中心의 社會體系가 하겠으며,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生活圈은 5日마다 열리는 장날(市場)의 經濟社會活動이며, 그 밖에 國民學校 中心의 教育活動과 行政官廳 그리고 利益集團參與

(9) 金泳謨, 韓國社會學, 서울, 法文社, 1972, pp. 131-132.

中心의 社會活動과 學校 및 娛樂機關이 生活圈의 媒介役割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農村 部落民의 社會的 活動은 과거에 성행했던 契活動이나 冠婦喪祭禮에의 參與가 오늘날 불과 3할 정도로 줄어 들고 있고, 이와 반대로 里洞組合 4H클럽 婦女會 親睦會와 같은 近代的 利益集團에의 參與는 形式上 加入이 70.5%程度로 활발하나 이들의 실제적 활동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¹⁰⁾ 그리고 傳統的 文化 遺習인 세배 성묘 단오절 한식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오늘날 農民의 社會的 意識은 家族主義 共同體的 連帶意識 權威主義 및 人情主義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農村社會는 上述한 바와 같이 아직도 傳統的 遺習과 文化가 傳承되어 農民을 統制하는 강력한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社會에는 그러한 社會統制가 존재하지 않아서 住民을 傳統的 羈束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社會規範과 秩序를 形成케 한다 解放後 우리나라에서 農民向都離村과 都市化는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年度別 都市人口와 農村人口 比較

年 度	全 國 人 口 數	都 市 人 口 數(比率)	農 村 人 口 數(比率)
1946	19,369,270	2,831,926 (14.6%)	16,537,344 (85.4%)
1949	20,188,641	3,474,151 (17.2%)	16,714,489 (82.8%)
1955	21,526,374	5,281,432 (24.5%)	16,244,942 (75.4%)
1960	24,989,000	6,997,000 (28.0%)	17,992,000 (72.0%)
1966		(33.6%)	
1970	31,425,000	(41.4%)	(58.9%)
1975	34,688,000	(48.5%)	(51.5%)

上說表에서 解放後의 向都離村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解放된 해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주로 해외교포와 월남동포들이 多數 都市로 集中하였다.

解放後 南韓에 들어 온 同胞 (1945. 8.15부터 1949. 5. 1까지)

日本	936,001人	55.5%
北韓(월남동포)	481,204人	28.5%
滿洲	212,007人	12.5%
美國	42,232人	2.5%
其他外國	16,261人	1.0%
計	1,687,586人	100.0%

다음에 1950년부터 1955년에 이르는 5年間에는 1950年 6·25事變의 勃發로 인하여 安定期에 놓이게 되었던 南韓의 人口分布가 마침내 벌집을 쑤셔놓은 듯 극도의 混亂과 不均衡을 자아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都市人口의 팽창은 事變으로 인한 一時的 激增에 불과

(10) 高鳳京外共著,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1964, 第15章 참조.

하나 戰亂中에 農村人과 都市人들의 활발한 接觸과 社會的 流動化로 인하여 農村人들로 하여금 思想的인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離村向都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시 1955年 以後 1960年에 이르기까지의 경향을 보면 1955년의 都市人口에 비해 1960년의 都市人口는 막대한 數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時期에는 人口의 自然增加率(2.88%)을 引出해 내었으니 이 率에 의한 都市人의 自然增加數(約 47萬名)를 제외한 數 즉 約 127萬名이 5年間 農民離村에 의한 都市의 人口增加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70年度에 比하여 75年度의 都市人口는 7.4%나 增加했으며 특히 서울의 人口가 全體의 19.8%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首都人口가 全體人口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適正人口로 간주할 때 約 2倍가 되는 過稠密人口集中現象이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 兩大都市가 全體人口의 26.9%를 占有하고 있으며 이는 首都集中度에 있어 世界 第一位를 차지한다. 이와같은 韓國의 都市化의 特性은 60年代까지의 都市社會에 各種의 「아노미現象과 混亂을 수반하여 政治不安의 要因이 되었다.

1963년부터 軌道에 오른 家族計劃이 人口의 年平均增加率을 2.0%以下로 억제하는데 成功하였으나 이것은 相對的인 人口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絕對的인 人口의 過多는 우리나라 全體人口의 分기에 더욱 均衡을 잃게 하였다. 韓國의 人口는 70년에 比하여 75년에 10.8%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고 75年 現在의 增加率은 1.7%로 鈍化되고 있으나 人口密度에 있어서는 75年度 現在 平方km當 351名으로 世界 第2의 密集國이 되었다. 더우기 國土의 大部分이 산악지대인 관계로 農耕地平方km當 人口는 世界에서 가장 높은 1500名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60年代 中半부터의 加速된 離村人口는 大都市集中現象을 促進하였으며 그것은 서울 부산등 大都市를 異常肥大化시키고 過稠密集中傾向을 가져왔으며 同時에 農村에서의 必要한 勞働力의 不足과 함께 都市에서의 不必要한 勞働力의 死藏을 초래하였다. 이와같은 向都 人口移動의 特性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離農한 人口의 거의 75%가 서울에 集中하고 있으며 全體勞動人口의 88.8%가 大都市集中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그리고 全體移入人口의 55.0%가 經濟的 要因인데 反하여 教育的 動機를 위주로 한 文化的 要因이 41.8%를 점하고 있다. 이렇듯 大都市集中現象은 서울을 위시한 釜山, 大邱, 光州, 仁川 등 大都市에 적지 않은 갖가지 政治, 行政, 社會, 文化的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例컨대 都市의 住宅, 教育, 交通, 通信, 上下水道, 電氣, 低所得層의 生計 公害 衛生 등 諸問題의 解決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都市社會는 그 構成員의 特性이 匿名感(anonymity)이 높기 때문에 農村社會에 比하여 地緣的인 近隣關係가 거의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都市社會가 職業이 家庭으로부터 분리되어 완전히 個別化되고 따라서 都市民의 社會的 相互作用

(11) 金大煥, 論文原稿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에서 I. 經濟成長의 諸段階

이 地理的 條件보다는 오히려 利益 또는 關心등 2次要因에 依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韓國의 都市는 급격한 人口의 都市化를 이루고 社會流動이 심했기 때문에 都市人의 地域集團에의 歸屬意識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大部分의 住民이 外部에서 들어오게 된 新入住者들이며 서울시의 原住民은 不過 26.0%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서울시民의 대부분이 解放後 특히 6·25戰亂을 전후하여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地域社會에의 歸屬意識이 대단히 박약하며 오히려 血緣集團에의 歸屬意識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韓國에 있어 都市民 相互間의 共同生活를 가능케 하는 共同媒介가 되는 것은 職場, 市場, 學校, 行政 및 宗教를 中心으로 한 生活圈이라 하겠으며 都市民들이 自發적으로 社會參與하는 社會組織으로서는 契, 同窓會, 親睦會, 冠婚喪祭 및 各種俱樂部 등이 비교적 높은 參與度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韓國의 都市社會에 있어 大部分의 住民의 個性은 傳統的 農村文化의 영향을 받아 社會化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農民의 性格을 가지면서 아울러 都市의 性格을 가진 이른바 二重의 意識構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都市住民들은 韓國農民의 傳統的 社會意識인 家族主義, 共同體의 連帶意識, 權威主義 및 人情性을 弱化된 形態나마 간직한 채 近代化의 社會意識으로서 個人主義, 普遍主義, 合理主義, 形式主義 또는 自由主義 定向을 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韓國의 社會階層

무릇 社會階層(stratum or stratification)은 社會의 勢力 즉 財産과 威信(prestige) 및 權力의 差異⁽¹²⁾ 換言하면 社會的 不平等의 程度에 따라 上下의 順序를 매김으로써 조성된 連續性的의 區劃으로서⁽¹³⁾ 그 形態와 構造는 各國에 따라 다르고 時代에 따라 變化한다. 대개 社會階級이 兩分法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社會階層은 多分法, 주로 3分法과 6分法을 사용한다. 즉 社會階級은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G. Mosca),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資本

(12) Max Weber는 K. Marx主義思想의 基本적 特征인 階層의 經濟的 側面에 대하여 認定하면서 個人과 階級의 生活機會의 決定要因인 財産(property) 이외에 權力(power)과 威信(prestige)의 側面까지 부가할 것을 主張하였다. (Melvin M. Tumin; *Social Stratifi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7, p. 6) 一般적으로 後進社會에 있어서는 社會階層의 形成이 특히 經濟外의 要因 즉 權力關係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13) 社會階層에 있어서 各 社會階層間에는 同質性이 假定되고, 다만 一定 社會的 不平等性의 程度의 差를 나타내는 連續性的의 區分인데 대하여, 社會階級에 있어서는 傳統的으로 成層의 非連續的인 斷切的 位階를 지칭한다. 따라서 階級은 相互對置되는 다른 階級の 存在를 前提로 하고 있으며, 各 階級을 區劃하는 斷切된 境界線이 실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Max Adler는 即自的階級(klasse an sich)과 對自的階級(klasse für sich)을 區分하고, 即自的 階級은 客觀的 實在로서 존재하는 階級을 그리고 對自的階級은 自覺된 階級, 換言하면 階級意識을 자각하고 단결하고 행동하는 階級이라 하여 區別하고 있는 것이다.

家階級과 勞働者階級(K. Marx & F. Engels), 또는 엘리트와 大衆등으로 兩分하고 社會階層은 傳統的으로 兩班, 常民, 賤民 그리고 支配層, 中産層 및 下層등으로 3分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社會階層의 變動을 의미하는 社會移動(social mobility)은 社會的 職業的 地位의 轉換을 의미하며 그 社會移動의 主要한 形態로서 水平的移動(horizontal mobility)과 垂直的 移動(vertical mobility)이 있는 것이다. 흔히 社會的地位의 上昇・下降을 가져오는 垂直的 社會移動이 중심이 되며 그다음으로 水平的 社會移動으로 이것은 地位變化가 없는 社會機能의 變動이다. 이와는 별도로 地理的・空間的 移動이라 하여 地域間的 移住나 移民을 지칭하기도 하나 이는 社會移動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生態學的 位置의 變更에 해당한다 그리고 社會移動의 形態를 時間的 次元에서 본다면 世代內移動(intragenerational mobility)과 世代間移動(tergenerational mobility)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前者는 階層體系의 上昇의 手段으로서의 職業變動, 昇進과 降等 및 收入과 威信의 上昇과 결부된 經歷등으로 測定되며 後者는 世襲性에서 그의 特性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 분야에 관하여 調査 研究된 것이 없으나 여하간에 한 社會의 垂直移動은 그 社會의 構造가 얼마나 伸縮性있느냐가 또는 얼마나 業績的 基準이 成層의 基底를 이루는가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垂直移動이 容易한 社會는 業績이나 能力에 따라 新陣代謝가 빠르게 進行될 수 있으며 이를 開放階級社會라 하고 이와 反對로 垂直移動이 없거나 거의 不可能한 社會를 카스트社會라 하여 이는 人種, 性, 家門등 歸屬의 基準이 여러 生活領域에서 크게 작용하는 社會이다. 그러나 實際上 完全한 카스트社會가 存在하지 않는 것과 같이 완전한 開放社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社會移動은 그 나라의 支配階級, 政治制度, 政治文化, 政治的 充員制度, 選舉制度 및 社會移動의 性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社會階層分化的 歷史的 展開過程을 간단히 훑어보건대 朝鮮朝時代의 社會階層은 엄격한 身分制度에 의하여 垂直移動이 規制되어 있는 所謂 카스트社會이다. 時代가 흐름에 따라 漸次 開放化되기는 하지만 朝鮮朝社會의 身分階級은 兩班, 中人, 常民, 賤民의 넷으로 區分이 되었으며 實際로는 대개 일곱층으로 나누어진다. 즉 가장 높은층은 王室과 王族이고 다음층은 儒林, 勳族, 忠臣의 後裔로서 官에 등용될 수 있는 支配階級家門에서 태어난 兩班이다. 第3의 層은 兩班은 아니지만 그에 準하는 者로서 鄉班이나 土班 그리고 土豪등이 이에 해당한다. 엄격히 말하여 兩班의 子孫이라도 官에 登用된 사람으로부터 4代가 지나도 벼슬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은 兩班의 자격을 상실하고 鄉班으로 떨어지며 土班은 鄉班보다도 더 자격이 떨어져 아주 오랜 過去에 벼슬을 지낸 兩班의 後孫을 말한다. 그리고 土豪는 보통 서울兩班의 一家親戚으로 시골서 형세하는 者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네번째 層은 中央官衙에서 技術官을 世襲으로 하는 中人이다. 이러한 技術官은 雜科에 及第한 者가 되었다. 다음의 다섯번째의 層은 庶孽이며 兩班의 庶出로서 兩班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여섯번째는 常民이다. 常民에는 다시 下士官級의 軍兵, 官衙에서

末端 司法行政業務를 맡아보는 吏胥(또는 衙前), 一般農民, 工人, 商人 등 여러층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이들 常民階級 중 吏胥나 軍人은 가장 勢道가 있었고 또 農民은 工人이나 商人보다 덜 賤하였다. 마지막 일곱번째는 賤民으로서 奴婢, 俳優, 巫覡, 白丁 등이 이에 속한다.

오늘날 이와같은 班常差別은 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農村에는 과거의 身分을 따지는 일이 전혀 없어지고 있지는 않다. 朝鮮朝時代의 封建的 身分關係는 日帝下의 土地 調査事業으로 近代의인 土地私有制度가 확립되면서 決定的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前時代의 兩班과 鄉班, 土班 중 地主, 有力者와 中人和 衙前들은 土地調査事業 以後 大部分 地主 또는 自作業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日帝時代에 있어서의 韓國 農村社會階層의 주요 特徵의 하나는 韓國人 地主뿐만 아니라 日本人의 土地收奪이 심하여 韓國人の 地主, 自作業은 각각 急進的으로 轉落해 간 것이다. 한 調査統計에 의하면 1914년에 自作, 自小作, 小作의 比率이 각각 22.3%, 39.6%, 38.1%였던 것이 1937년에는 19.2%, 25.7%, 55.1%로서 小作農이 크게 增加하고 있으며⁽¹⁴⁾ 따라서 日帝時의 農村社會階層은 小數의 地主富農과 多數의 零細小作貧農으로 顯著하게 分化되고 中間層인 自作農이 몰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解放이 되자 農村社會階層은 美軍政下의 3.7小作制 改革과 新韓公社 管理下의 歸屬農地의 分配, 農地改革實施를 계기로 크게 變動을 겪게되었다. 즉 美軍政廳이 관리하던 歸屬農地 30餘萬町步를 73萬家口에게 有價分配하였으며 1949年の 農地改革은 耕者有田의 원칙 아래 政府가 모든 小作耕作地를 有價買收하여 이를 92萬農家口에게 長期年賦로 有價分配함으로써 傳統的인 寄生的 不在地主를 없애고 많은 獨立 自作小農을 설정하였으며 또 三町步를 上限額으로 그 以上の 農地를 한사람이 所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在村小地主를 크게 沒落케 하여 보통의 自作農과 다름없는 落層化 現象을 가져오게 하는 政策을 斷行한 것이다. 農地改革은 어느 程度 獨立自作農制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成果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小作農을 없애지는 못하였다. 즉 農地改革法은 小作關係를 法的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워낙 全國의 土地가 不足하여 耕作能力에 비하여 과소한 農地밖에 分配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또 土地를 所有하나 勞動力이 不足하거나 다른 職業에 종사하게 되어 雇傭人을 두거나 小作을 주는 傾向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위 內容小作이라고 하는 일종의 음성적인 小作關係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거기에서 農地改革以後에 6·25戰爭勃發과 人口增加低穀價 및 高率의 生産費등으로 零細農家は 急激히 增加하였다. 또 農地改革은 農村社會에서 農土를 둘러싼 前近代의인 人間關係를 완전히 解消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農地改革에서는 村中들의 祖先崇拜를 위한 位土(墓하나에 400坪까지)와 墓直을 그냥 保有할 수 있게

(14) 朝鮮經濟圖表, 朝鮮總計協會刊, 1940, p. 168.

하였기 때문에 同族集團의 結合을 可能케 한 것이다.

農村地域의 階層構造를 全國적으로 調査한 資料는 없으나 몇몇 郡을 對象으로 實施한 한 調査統計에 의하면 大體로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人口 중 약 60%는 自作農이고 약 20%가 純小作 또는 部分的小作을 부치는 사람이라고 한다.⁽¹⁵⁾ 그러나 이 統計만 가지고 農村社會階層을 推定하기는 困難하다. 왜냐하면 低穀價와 農產物生産費 昂騰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른바 自作農도 다른 兼業이나 副業이 없는限 下層에 屬할 것이고 그 중 소수가 中間層에 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1960年代以後의 高度經濟成長과 國土綜合開發 및 1970年代 以來의 村마을運動의 活潑한 展開를 勘案할 때 農民의 階層移動은 土地所有規模를 가지고 논란하기는 어렵고 零細農과 中農의 兼業 및 副業 그리고 經濟的 社會的 地位등을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社會階層은 특히 60年代 以來의 高度經濟成長의 副產物로서 地域間 階層間 또는 世代間의 文化的, 社會的 隔差를 가져왔으며 國民所得面에 이른바 富益富, 貧益貧의 社會的 不平等의 深化를 招來함으로써 階層構造는 거의 兩極化되어가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특히 都市와 農村人 間에 所得水準의 隔差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都市와 農村間의 教育的 職業的 地位의 隔差도 크게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調査統計 表 I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階級과 階層構造에 있어 이미 1960年代 中半期에 階層分화가 進行되어 小數의 支配엘리트는 그 大衆의 基盤이 缺如하고 大衆과의 사이에 社會的 乖離傾向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⁶⁾

〈表 I〉 社會階層의 分化

階層	年 度		
	1960	1966	6年間 增減
有 產 者	46.3	36.9	-9.4%
화 이 트 칼 라	5.2	7.5	2.3%
勞 動 者	17.4	28.3	10.9%
家 事 從 事 者	30.4	27.2	-3.2%
未 詳	0.7	—	
合 計	100.0	99.9	

즉 上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年間に 有產者는 9.4% 감소하고 있는 反面에 勞動者는 10.9%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 화이트칼라는 2.3% 증가, 家事從事者는 3.2% 감소하고 있다. 上記의 有產者는 90.1%가 1人自營業者인 農民과 小商人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小數 資本家에의 資本集中과 中產層의 몰락, 나아가서는 勞動者의 量的增大傾向을 엿볼 수 있으며 아울러 화이트칼라의 증가를 통하여 行政 및 企業組織의 膨脹을 또 家

(15) 韓國農村 社會研究會編, 農村社會學, 民潮社, 1965, p. 187.

(16) 金泳謨, 韓國社會學, 法文社, 1972, p. 176.

事從業者의 감소로 生活困窮과 階層的 沒落을 엿보게 된다.

다음의 諸調查結果에서도 大體로 비슷한 階層分化傾向이 示唆되고 있다.

〈表 II〉 歸屬意識을 통해서 본 都市階層構造

上	層	2.3%	
中	間	層	47.9%
下	層	49.6%	

表 II에서는 上層이 적고 中下層이 擴大된 構造로 나타나고 있다.⁽¹⁷⁾

〈表 III〉 서울市の 職業構造

資	本	家	1.8%
中	產	層	37.9%
화	이	트	칼
라			30.1%
勞	動	者	27.7%
其	他		2.5%

表 III에서는 極小數資本家の 質的肥大와 中間層의 큰 擴大(中產層과 화이트칼라 合計 68%) 그리고 勞動書는 27.7%이나 流動的인 勞動者와 下層民은 調査對象에서 누락되었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그 構成比率은 더욱 높으리라고 본다.⁽¹⁸⁾

〈表 IV〉 서울市の 階層構造

上	層	7.4%	
中	의	上	27.7%
中	의	下	36.1%
下	의	上	22.9%
下	의	下	5.9%

表 IV의 階層構造는 財産, 學力, 收入등을 尺度로 調査한 結果로서 上層이 극히 적은데 비하여 中間層은 63.8%로 매우 크게 肥大해지고 있다. 下層은 28.8%로서 上層 7.4%와 대조해서 兩者間의 質的隔差를 나타내고 있다.⁽¹⁹⁾

表 V는 1972년에 全國의 大都市, 中小都市, 邑 및 農村의 4大分類아래 地域別 標本으로 生活水準의 分布를 調査한 結果이다.⁽²⁰⁾ 이 結果를 통하여 全國的인 階層分化現象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17) 李相佰, 金彩潤; 韓國社會階層研究, 民潮社, 19966, p. 57.

(18) 金泳謨, 「서울市の 社會階層과 階級構造에 관한 研究」,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1969, p. 620.

(19) 金泳謨, 韓國社會學 前掲書, p. 177.

(20) 高永復教授調查報告書, 192, 第1章 調査目的과 方法, p. 10.

社會階層의 評價로서 여기서 택한 方法은 應答者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生活水準을 6個 범주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한 것이었다.

〈表 V〉 응답자의 생활수준 分布

생활수준	사 람 수	%
上 의 上	26	1.20
上 의 下	63	2.92
中 의 上	471	21.85
中 의 下	866	40.18
下 의 上	477	22.13
下 의 下	237	10.99
무 응 답	15	0.69
計	2,155	100.00

表V에서 보면: 中의下가 40.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下의上(22.13%), 中의上(21.85%), 下의下(10.99%) 차례고 上의上, 上의下는 모두 4.12%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면 都市와 農村을 막론하고 中下層 또는 下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上層이 소수인 것은 量的으로 소수이지만 質적으로 대단히 肥大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편으로는 그 信憑도가 약하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前記한 表 I에서 表 V까지의 調查結果를 통해서 보건데 階層構造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上層이 極小化하면서 質적으로 肥大해지고 있는 反面에 中·下層이 擴大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을 위시한 都市의 경우 上層의 質的肥大가 顯著하고 中間層이 擴大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農村에서는 특히 下層이 比較的 擴大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社會移動狀況을 보면 일반적으로 비록 過去에 비하여 解放以後 階層移動과 充員機會가 대단히 開放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機會를 포착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實質上 社會移動의 어느정도의 閉鎖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社會階層間의 隔差擴大化傾向 또는 社會的 不平等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機會構造는 社會分化로 인하여 擴大되고 있고 充員機會포착을 위한 能力과 資質은 주로 教育過程에 의하여 획득되고 있음으로 오늘날 社會移動은 教育機會가 결정적인 役割을 미치고 특히 엘리트가 되는 길은 一流學校에의 進學이 切경인 實情이다.

教育機會는 大學과 高等學校등 教育施設뿐만 아니라 패스·미디어, 職業訓練, 娛樂등의 社會文化 敎育施設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과 其他 大都市에 있어서 農村이나 餘他地域보다 더욱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社會的 支配層이 되려면 우선 大學卒業資格이 必要하고 2次的으로 知的能力이 문제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企業組織이나 社會組織에 있어서 家族主義的 特性이 강해서 血緣, 地緣, 同窓등 第1次的 紐帶關係가 많이 작용하여 자격있는 모든 사람에게 機會가 똑같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表 VI〉 教育機會의 階層背景

年度	學校	階層				
		有 產 者	화이트칼라	勞 動 者	기 타	合 計
196	大 學	61.0	32.1	0.5	6.4	100.0
	大 高 校	57.3	34.7	0.4	7.2	99.6
	中 學	42.1	53.5	—	4.4	100.0
	全 國	66.6	7.4	25.0	1.0	100.0
1970	大 學 院	45.5	46.8	—	7.7	100.0
	大 學	49.5	43.4	—	7.1	100.0
	高 校	45.4	44.1	0.1	10.4	100.0
	中 學	44.2	53.1	—	2.7	100.0
	全 國	50.8	10.3	38.9	—	100.0

(備考) ① 調査對象校는 所謂一流校로서 세칭되고 있는 大學은 서울大·高大·延大이고 高校는 京畿高·서울高·景福高·釜山高·慶南高·大田高·光州一高·全州高이며 中學은 京畿中·서울中·景福中이다.

② 1970年の 全國은 1966年の 國세 조사.

③ 有產者는 商業從事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農業·工業이며 화이트칼라는 公事員과 會社員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주로 自由業從事者임.

表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世稱 一流學校 學生의 出身階層은 거의 대부분이 「화이트칼라」, 中產家庭이며, 이들이 각기 全體比率을 거의 半分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階層背景을 全國의 水準과 비교한다면, 教育機會가 中上層에게만 偏重的으로 開放되어 있어 教育機會의 均等性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世稱 一流校는 大都市 특히 주로 서울에 集中되어 있고, 農民의 子女들이 이에 進學하고자 하는 教育熱은 컸기 때문에 農村의 소와 田畝을 팔아서 學費에 充當하는 傾向이 많았으며, 大學을 所謂 半骨塔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農村의 窮乏이 助長되었고, 한편 大都市에로의 人口移動 특히 서울의 人口集中을 助長하기도 하였다.

이로서 韓國社會移動의 構造的 隔差와 機會의 不均等이 地域間 그리고 階層間에 存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隔差와 不公正은 동시에 地域階層 및 世代의 差異에 따라서 意識構造의 分化를 초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 우리나라의 支配層의 形成과 移動에 관하여 이를 近代의 權力「엘리트」의 形成過程인 韓末·日帝時代·解放後의 3時期로 區分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朝鮮王朝時代의 支配階級은 兩班이지만 權力「엘리트」는 官人이었다. 開港以後 日本을 위시한 美國, 露西亞등과 修交通商이 이루어지자 官人社會는 傳統的인 親淸事大主義「엘리트」의 分化를 가져오고 親日開化「엘리트」의 成長과 더불어 親美 또는 親露엘리트가 擡頭하게 되었다. 日帝가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에서 勝利함으로써 韓末島에서 親淸, 親露엘리트를 排

(21) 金泳謨, 前掲書, p. 182.

除하고 오로지 親日엘리트를 희유하여 植民地化한 後에 그들을 貴族으로 포섭해서 대우하였다. 마침내 卍末年 3·1軍動을 契機로 이를 主導한 勢力으로서 民族엘리트가 形成되었다. 이 民族엘리트의 主體는 韓末의 東學革命을 主導한 天道教勢力과 基督教勢力으로서, 이들은 모두 韓末의 中人階級에 의하여 受容되고 形成되었다. 이것은 韓末에 中人階級이 몰락한 兩班層 대신 새로운 엘리트로 交替되어가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²²⁾ 또 3·1軍動의 主導勢力인 基督教과 天道教의 核心人物들도 中人階級 出身이 아니면 商工業이나 近代의 教育機關과 有關한 人物들이었다. 이것은 民族엘리트의 社會的 背景이 中人階級과 商工業에 關聯된 사람이 많고, 近代의 教育을 받고 市民精神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日帝의 植民支配 以後는 官職代身 資本이 모든 收入과 權力 및 威勢의 源泉이 되었다. 그리고 權力엘리트가 될 수 있는 職業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教育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直接統治方式의 植民支配가 深化되면서 韓國人에 대한 高等教育의 機會는 거의 박탈되었으며, 韓國人의 政治的·社會的 機能이 制約됨으로서 엘리트의 閉鎖性이 나타나게 되었고, 韓國人이 權力엘리트가 되는 것이 制度上으로나 實際적으로 封鎖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地主와 小數의 商工業資本家를 中心으로 하는 經濟엘리트가 成長하였고, 日本과 國內의 大學專門教育을 받는 潛在的 知識엘리트가 있어 이들 중 일부는 總督府의 官僚로 充員되고 있었다. 이밖에 小數의 歐美留學生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國內外的 知識엘리트는 대부분 經濟엘리트의 子弟들로서 實際로 兩者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었다. 이나같이 日帝時代에도 微弱하나마 韓國人 중에 商工業資本家와 大地主가 存在하였고, 이들의 物質的 基盤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子孫으로 엘리트가 充員되고 있었다.

解放이 되자 政治엘리트는 基督教文化의 背景을 가진 歐美엘리트와 傳統的 土着勢力인 地主엘리트로 構成되었고, 經濟엘리트는 日帝時의 商工業家와 解放後의 官僚들에 의해서 形成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政治權력과 官權을 利用하여 特惠融資, 利權拂下 및 인플레이션등에 便乘하여 成長하였다. 이들 初期 權力엘리트의 社會的 性格에 비추어 政治엘리트는 自由民主主義와 保守的 政治理念을 가지고 있었으나 政治資金이 없었기 때문에 經濟엘리트와 野合하여 그 形成과 같이 關聯되었고 또한 社會的 勢力基盤이 없었기 때문에 大衆과의 好惡과 利益關係가 斷絶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經濟엘리트는 政治志向의 賤民資本家의 性格을 가지면서, 日帝支配者가 물러나는 바람에 또 當時의 政治經濟的 狀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政治志向의 獨占資本家로 成長할 수 있었다.

解放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其間의 社會變動에 따라 自生的으로 또는 制度的으로 성숙된 社會的 政治的 勢力이 形成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顯在化된 學生과 軍部와 같은 社會

(22) 王朝時代의 外來文化와 天主教 實學 및 開化思想등이 中人階級 그 중에서도 주로 譯官에 의해서 전래되거 兩班層에 의하여 受容되었고, 東學의 敎主들은 中人階級 중에서도 衙前出身이고 庶子이 었다. 이렇듯 中人階級은 그 社會的 政治的 機能을 통하여 社會發展에 適應寄與하였다.

勢력이 있고, 潛在된 勤勞者 農民과 같은 社會階層이 있으며, 또한 政治人, 企業家, 知識人, 言論人, 官僚 나아가서는 各種 利益代表등, 權力엘리트로서 組織化되었거나 成長할 可能性이 있는 社會勢力이 있다. 그리고 이들 權力엘리트의 社會的 背景은 주로 土地資本과 基督教文化에 근거하고 있음이 調查結果 드러나고 있다. (23) 解放後 初期에는 經濟的엘리트 즉 地主엘리트와 企業엘리트에서 政治엘리트로 많이 轉換되었고, 5·16革命후에는 특히 軍事엘리트가 政治엘리트를 위시하여 官僚엘리트 및 經濟엘리트로 많이 轉換되었으며, 최근에는 官僚와 知識엘리트도 政治엘리트로 많이 充員되고 있다.

다음 말으로 우리나라 中産層의 性格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韓末에서 日帝植民時代를 거쳐 解放된 우리는 西歐와는 相異한 近代化 過程을 밟았다. 우선 日帝의 植民化는 西歐와 같은 近代化의 擔當勢力으로서의 商工業階級の 形成을 許容하지 않았다. 解放以後에도 政治的 混亂이 겹쳐 商工業資本家が 제대로 成長할 수 없었으며, 다만 政治的 行政的인 庇護下에 可能했고 또 갑작스럽게 育成되었으므로 「막스 웨버」가 말하는 企業家精神이나 禁欲主義 또는 經營合理化를 土臺로 成長한 경우와는 相異한 本質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3) 金圭澤, 韓國政治變動論, 一潮閣, 1971, pp. 170, 177-180.

例컨대 政治엘리트의 宗教背景은 基督教가 全體의 32.5%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儒敎徒(17.4%) 및 天主教徒(8.5%)이며, 世代間 職業背景을 보면 全體의 36%가 地主出身이고 25%는 官僚·專門職 및 企業家出身이다. 그리고 知識엘리트도 대부분 日帝時 大地主의 후예이다.